

교과서 다문화 악곡의 음악 구성 요소와 다문화 요소에 대한 예비 초등교사의 인식조사

윤 문 정*

본 연구는 3~4학년 초등 음악교과서 안에 수록된 다문화 악곡의 음악 구성 요소와 다문화 요소에 대한 예비 초등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총 95명이 참여하였고, 14주에 걸쳐 다문화 음악 학습 프로그램을 한 학기동안 진행하였으며 프로그램 시작 전과 후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 중에는 다문화 음악을 학습한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와 경험이 없는 무경험자가 있었는데 연구 결과, 학습 경험 유무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양쪽 그룹 모두 음악적 요소 보다는 다문화적 요소를 어렵게 인식하고 있었다. 비교적 쉽게 인식하고 있는 요소는 셈여림, 빠르기, 박자 등이었고,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요소로는 가사에 대한 이해와 발음이었다. 14주간의 다문화 음악 학습 프로그램 후에는 대부분의 요소들을 사전 보다는 쉽게 인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교원 양성 기관에서 다문화 음악교육 커리큘럼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주제어: 다문화 음악교육, 예비교사 인식, 다문화

차 례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제한점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2. 연구 절차 및 조사도구
3. 교육 프로그램
4. 자료 분석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다문화 음악 학습 유경험자의 사전·후 분석 결과
2. 다문화 음악 학습 무경험자의 사전·후 분석 결과
3. 다문화 음악 학습 유·무경험자 간의 비교 분석 결과
4. 개인의견
5. 결과 논의

IV. 요약 및 제언

* 진주교육대학교 조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다문화 음악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결과로 현재 초등 음악교과서 안에는 다양한 지역과 문화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2014년에 출판된 초등음악 3~4학년 교과서를 살펴보면 가나,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러시아, 멕시코, 몽골, 미국, 베트남, 브라질, 아일랜드, 영국, 일본, 짐바브웨, 중국, 캐나다, 프랑스, 필리핀의 곡들이 수록되어 있다. 해당 문화의 언어로 노래를 듣고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적·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 음악이 교과서에 다수 수록되어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윤문정, 2009; Anderson&Campbell, 1989). 다문화 음악교육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권의 노래가 교과서에 수록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록된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다수의 연구가 다문화 교육에서 교사의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고, 교사가 긍정적 태도와 지식을 갖추도록 교사 양성기관이 노력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최진호, 2010; 김영옥 외 2011; Olson, 1993). 교육 현장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사는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음악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Chen-Hfteck, 2007; Kerchner and Knight, 2003; Olson, 1993).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문화 관련 과목이 교사양성기관에서 개설되고 있긴 하지만, 음악교육과 관련된 수업은 그 숫자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교원양성기관 중 몇몇 교육대학원에서 월드뮤직 교육론, 사회음악교육론, 민족음악학이 개설되어 있을 뿐, 접근법이나 방법론적인 내용은 거의 없다(이가원, 2013). 교사양성기관에서 다문화음악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면 교사들은 다문화 음악을 지도하면서 큰 어려움을 느끼거나, 자신이 다문화 음악에 대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조차 파악을 못한 채 수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악곡과 관련된 사회, 지리, 역사, 언어 등의 다문화적 요소들(승윤희 외, 2013)에 대해 현장 교사 대부분이 어려워하고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향정, 2010; 윤문정, 2009).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는 교사의 능력 및 지도 역량 부족, 교사연수 부족, 실제적인 지도사례 부족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김향정, 2014; 이동남, 홍주희, 2009; 이지선, 조효임, 2004), 이는 대부분 교사 교육

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성공적인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해 교사교육이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문화 관련 수업을 실시하기보다는 예비 교사들에게 현재 부족하거나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 예비 교사들이 갖고 있는 다문화 음악 학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2014년에 출판된 초등 3~4학년 음악교과서에 있는 다문화 곡을 학습하기 전과 후의 인식 조사를 통해 실제 어렵다고 생각하는 음악 개념과 다문화 요소가 무엇인지, 학습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았다. 이 연구 결과는 예비교사들을 위한 다문화 음악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수립하는데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제한점

동일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교육방법, 세부적인 수업내용, 가르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사용한 악곡이나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수업에 사용한다고 해도 교수법이나 가르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예비교사) 95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참가자들의 전공학과는 도덕, 국어, 사회, 체육, 수학, 과학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고, 1학년 91명, 2학년 2명, 4학년 2명으로 구성되었다. 다문화 곡을 한번이라도 학습한 경험이 있었던 학생은 58명, 학습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은 37명이었다. 성별이나 나이 등은 이 연구의 목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조사하지 않았다.

2. 연구 절차 및 조사도구

본 연구는 2014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시되었다. 다문화 음악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조사(pretest)가 실시되었고, 14주 동안 실시되었던 다문화 음악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동일 질문지로 사후조사(posttest)가 이루어졌다. 질문지에는 연구 참여자 개인정보와 다문화 음악 학습 경험 유무를 알아보는 간단한 질문과 인식조사를 위한 13문항이 포함되었다. 이 13문항은 크게 음악 구성적 요소와 다문화적 요소로 나뉘었다. 2014년도에 출판된 초등학교 3~4학년 음악교과서의 다문화 악곡과 관련된 활동을 분석한 결과 가창 활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창 영역을 중심으로 질문지가 구성되었다. 질문은 2011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3~4학년 군의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에서 제시된 성취기준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며 노래 부를 수 있다’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음악 요소 및 개념은 음악개념 및 체계표의 3~4학년 군의 내용이 기반이 되었다. 예를 들면, ‘박자를 이해하며 노래 부를 수 있다’라는 문항에 매우 어렵다(5점), 어렵다 (4점), 보통이다 (3점), 쉽다 (2점), 매우 쉽다 (1점)중에 선택하는 것이다. 다문화 음악교육을 하는 목적은 음악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사, 지리, 사회적 상황, 언어에 대한 이해 등을 함께 학습하고 다른 민족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적 내용과 더불어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서 음악을 다루어야 한다(송윤희 외, 2013).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다문화적 요소와 관련된 질문은 지리, 역사, 풍습, 곡의 가사이해와 발음으로 구성되었다<표 1>.

<표 1> 인식조사를 위한 질문지

영역 및 내용체계			내용	매우 어렵다	어렵다	보통 이다	쉽다	매우 쉽다
표 현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 하기	음악 요소 및 개념 이해 하며 노래 부르기	박자에 맞추어 노래 부를 수 있다					
			셈여림을 살려 노래 부를 수 있다					
			빠르기에 맞게 노래 부를 수 있다					
			리듬을 이해하고 노래 부를 수 있다					
			화음을 이해하며 노래 부를 수 있다					

영역 및 내용체계			내용	매우 어렵다	어렵다	보통 이다	쉽다	매우 쉽다
			조를 이해하며 노래 부를 수 있다.					
			음계를 이해하며 노래 부를 수 있다					
			형식을 이해하며 노래 부를 수 있다					
			지리					
			역사					
다문화 적 요소 (해당 악곡과 관련된 다문화 요소 이해)			풍습					
			가사 이해					
			정확한 가사 발음					

3. 교육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된 다문화 곡은 총 6곡으로 2014년도에 출판된 초등학교 3~4학년 음악교과서에서 발췌하였다. 모든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곡을 우선적으로 선곡하였고, 지역적 균형을 위해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대륙의 음악을 골고루 선곡하였다. 박자 역시 2/4, 4/4, 6/8 박자를 고루 불러 볼 수 있도록 선곡하였으며 다장조, 내림나 장조, 사장조, 라장조 등 다양한조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당김음, 못갓춘마디, 늘임표 등의 음악적 특징이 있는 곡들을 선곡하여 하여 음악적 특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악보가 분명하게 제시된 곡만을 포함하였으며, 원어 가사가 없는 곡은 제외하였다.

이 수업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구성되었다. 첫째, 음악적 구성 요소와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잘 표현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둘째, 악곡과 관련된 사회, 문화적 맥락 학습을 심층적으로 한다. 1주에 약 20분 정도의 수업을 총 14주 동안 진행했으며, 한 곡을 2회에 걸쳐 수업하였다. 수업의 형태는 제재곡만 달라졌을 뿐 동일하게 진행되었는데, 수업은 일반적인 가창 수업의 방식을 따랐고, 송윤희 외(2013) 제시한 가창 수업 모형에 근거하여 구성하였다. 첫 차시에는 노래 듣기-곡과 관련된 기본적 정보(국가, 언어 등) 학습-가사 읽고 뜻 알기-리듬 익히기(리듬 치기)-동영상 시청-반주 듣기-가사로 노래 부르기 활동을 했다. 곡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래를 먼저 듣고 난 후, 곡에 대한 간단하고 기본적인 정보를 주었다. 가사는 한국어가 함께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원어와 한국어를 모두 읽었으며, 그 뜻을 학습 했다. 음 없이 읽으면서 동시에 손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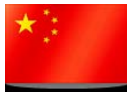
치기를 하면서 리듬을 익혔다. 그런 후에 다시 노래를 들었는데, 이 때 관련 동영상 상이 있는 경우 함께 보여 주었다. 첫 차시는 마지막에 가사를 넣어서 한번 불러 보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두 번째 차시는 가사로 노래 부르기-음악적 특징 및 개념 학습-곡의 배경 지식, 문화적 요소 학습- 마지막 노래 부르기로 구성되었는데, 첫 차시 마지막에 했던 가사로 노래 부르기 활동을 다시 하면서 시작했다. 각 곡이 갖고 있는 음악 개념과 특징을 배우고 이를 표현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3~4학년 군에서 배워야 할 음악의 기본적 개념-박자, 조, 셈여림, 빠르기- 등이 포함되었다. 이와 더불어 각 곡이 갖고 있는 특징적 요소들을 학습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했는데, 예를 들면 돌림노래, 세잇단 음표, 당김음, 늘임표, 점음표 등을 이해하고 유의하며 노래를 부르는 활동이다. 문화적 학습은 민족, 인종, 지리, 역사, 국기, 종교 등을 포함하여 해당 국가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보았다. 특히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특징과 해당 나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 등을 알아가는 시간이 포함되었고, 악곡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특징이 있는 경우 설명을 덧붙여서 곡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부른 후 한 곡에 대한 학습을 마무리했다. 악곡은 다르더라도 전체 학습 활동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표 2>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곡과 학습 활동을 간략하게 적어 놓은 것이다.

<표 2> 수업에 사용된 악곡 목록(제목 가나다 순)과 학습 활동

곡 제목	국가	대륙	박자	조	음악적 특징	출판사
꽃피는 봄날	필리핀	아시아	4/4	바장조	점음표	두산 동아
학습활동	1차시	· 노래 듣기 · 기본적 정보 학습: 국가(필리핀), 언어(타알로그어/영어 외) · 가사 읽고 뜻 이해하기 · 리듬 익히기(리듬 치기) · 반주 맞추어 가사로 노래 부르기				
	2차시	· 노래 부르기 · 음악 개념(4/4박자, 바장조 등) 이해하기 · 점음표 이해하고 특징을 살려 부르기 · 아시아 대륙에 대해서 알아보기(가장 큰 대륙,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속해 있음) · 필리핀의 특징(7000여개의 섬, 수도(마닐라), 기후(열대권), - 종교(80%천주교), 국기 · 마지막으로 노래 부르기				

노를 저어라	미국	아메리카	6/8	다장조	독립노래	미래엔
학습활동	1차시	· 노래 듣기 · 기본적 정보 학습: 국가(미국), 언어(영어) · 가사 읽고 뜻 이해하기 · 리듬 익히기(리듬 치기) · 노래 동영상 보기 · 반주 맞추어 가사로 노래 부르기				
	2차시	· 노래 부르기 · 음악 개념(6/8박자 강세, 지휘) 이해하기 · 점음표와 독립노래를 이해하고 특징을 살려 부르기 ·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 알아보기(북,중앙,남 아메리카/캐나다,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속해 있음/남아메리카 국가들은 축구로 유명) · 미국의 지리적 위치(북아메리카), 면적(세계3위), 인종(다양한 민족 구성), 역사, 수도(워싱턴D.C.), 국기  · 마지막으로 노래 부르기				
사라스폰다	네덜란드	유럽	4/4	다장조	못갓춘마디	지학사
학습활동	1차시	· 노래 듣기 · 가사 읽고 뜻 이해하기 · 기본적 정보 학습: 국가(네덜란드), 언어(네덜란드어) · 리듬 익히기(리듬 치기) · 반주 맞추어 가사로 노래 부르기				
	2차시	· 노래 부르기 · 음악 개념(4/4박자, 지휘 등) 이해하기 · 못갓춘 마디 이해하고 유의하며 노래하기 · 유럽 대륙에 대해서 알아보기(동,서,남,북 유럽, 요즘은 EU로 통합/프랑스, 독일, 헝가리 등 속해있음) · 네덜란드 위치, 특징(화가 렘브란트, 반 고흐, 몬드리안과 철학자 스피노자/ 튜립과 풍차의 나라),수도(암스테르담), 국기  · 마지막으로 노래 부르기				

수건돌려라	중국	아시아	2/4	라장조	당김음	두산 동아
학습활동	1차시	· 노래 듣기 · 가사 읽고 뜻 이해하기 · 기본적 정보 학습: 국가(중국), 언어(중국어) · 리듬 익히기(리듬 치기) · 노래 동영상 보기 · 반주 맞추어 가사로 노래 부르기				
	2차시	· 노래 부르기 · 음악 개념(라장조, 2/4 강약) 이해하기 · 당김음을 이해하고 유의하며 노래하기 · 중국 구성 민족(약 91%의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 우리나라와의 역사적 관계, 수도(베이징), 인구수(세계1위), 국기  · 마지막으로 노래 부르기				
아비뇽다리 위에서	프랑스	유럽	2/4	사장조	세잇단 음표 늘임표	미래엔
학습활동	1차시	· 노래 듣기 · 가사 읽고 뜻 이해하기(불어 가사 발음 유의하기) · 기본적 정보 학습: 국가(프랑스), 언어(프랑스어) · 리듬 익히기(리듬 치기) · 노래 동영상 보기 · 반주 맞추어 가사로 노래 부르기				
	2차시	· 노래 부르기 · 음악 개념(사장조, 늘임표 등) 이해하기 · 세잇단 음표 이해하고 유의하며 노래 부르기 · 프랑스 위치, 언어(불어), 수도(파리), 아비뇽 다리, 국기  · 마지막으로 노래 부르기				

체제클레	가나	아프리카	4/4	내림 나장조	선·후창	천재 문화
학습활동	1차시	· 노래 듣기 · 가사 읽고 뜻 이해하기 · 기본적 정보 학습: 국가(가나), 언어(영어, 토착어) · 리듬 익히기(리듬 치기) · 노래 동영상 보기(동영상 보면서 신체표현) · 가사로 노래 부르기				
	2차시	· 음악 개념(내림 나장조 등) 이해하기 · 선창 후창 개념을 이해하고 노래 부르기 ·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 알아보기(북부 아프리카는 이슬람과 대부분 백인, 중남부 아프리카는 언어, 종교 다양하고 대부분 흑인/북부와 남부는 지중해성 기후 나머지는 열대와 건조 기후) · 가나 위치, 수도(아크라), 기후(열대우림), 국기 · 마지막으로 노래 부르기				

4. 자료 분석

자료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분석되었다. 음악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인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 음악 학습 유경험자들과 무경험자들의 사전·사후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다문화 음악 학습 유경험자들과 무경험자들의 사이의 인식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그룹간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개인적 의견은 통계적 분석을 하지는 않았으나 답변 유형별로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다문화 음악 학습 유경험자의 사전·후 분석 결과

사전조사를 통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문화 음악 유경험 그룹이 어렵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가사를 이해하며 노래 부를 수 있다 ($M=3.93/SD=.92$), 가사 발음을 정확하게 노래 부를 수 있다($M=3.83/SD=.88$), 화음을 이해하며 노래 부를 수 있다 ($M=3.55/SD=.84$) 순이었다.

사전조사에서 가장 쉽다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박자를 이해하며 노래 부를 수 있다($M=2.76/SD=.84$), 빠르기를 이해하면서 노래 부를 수 있다($M=2.91/SD=.78$), 리듬을 이해하며 노래 부를 수 있다($M=3.02/SD=.87$) 순이었다.

다문화 음악을 학습했던 경험이 있던 그룹의 사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문항에서 사전보다 활동이 쉽다고 대답했다. 평균만을 비교했을 때는 모든 부분에서 평균점수가 하락했고, 이는 학습 프로그램 후에 모든 부분에서 이전 보다 쉽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통계적으로 보면 대부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지만, 박자를 이해하며 노래 부르기, 다문화적 요소 중 지리에 대한 이해, 가사 발음 부분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전과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점수는 하락했지만 가사 이해나 지리, 역사는 여전히 높은 점수로 나와 사후에도 비교적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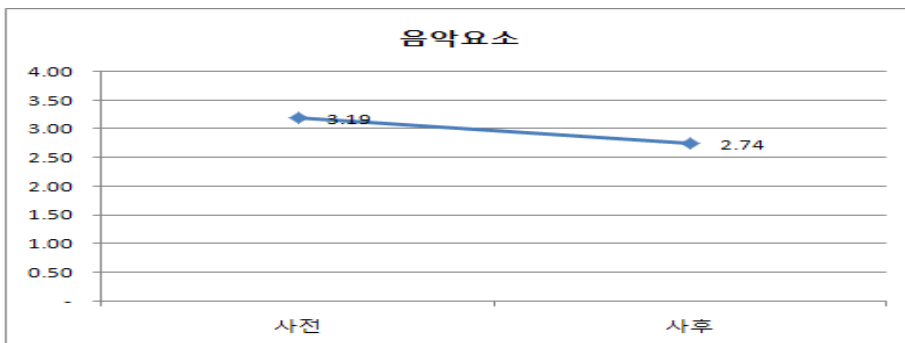
음악 요소와 다문화적 요소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을 해보면 음악적인 부분의 사전 조사 결과($M=3.19/SD=.586$)와 사후조사 결과($M=2.74, SD=.67$)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점수가 하락했고, 다문화적 요소 역시 사후에서 모두 점수가 하락했다. <표 3> [그림 1&2].

<표 3> 다문화 음악 학습 유경험자의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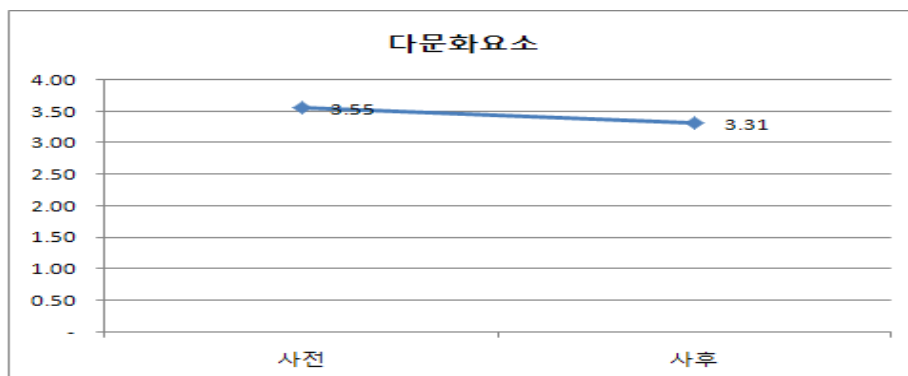
구분	N	평균(M)	표준 편차 (SD)	평균 차이	차이 표준 편차	t 유의수준 (양쪽)
박자_사전	58	2.76	.84	.16	1.07	1.102
박자_사후	58	2.60	.94			.275
셈여림_사전	58	3.22	.90	.58	1.06	4.211
셈여림_사후	58	2.64	.83			.000
빠르기_사전	58	2.91	.78	.36	.89	3.090
빠르기_사후	58	2.55	.78			.003

구분	N	평균(M)	표준 편차 (SD)	평균 차이	차이 표준 편차	t 유의수준 (양쪽)
리듬_사전	58	3.01	.87	.30	.94	2.513
리듬_사후	58	2.71	.88			.015
화음_사전	58	3.55	.84	.72	.93	5.913
화음_사후	58	2.83	.88			.000
조_사전	58	3.62	.95	.64	1.00	4.842
조_사후	58	2.98	.96			.000
음계_사전	58	3.03	.77	.33	.86	2.950
음계_사후	58	2.70	.80			.005
형식_사전	58	3.41	.80	.53	.99	4.091
형식_사후	58	2.88	.84			.000
지리_사전	58	3.21	.79	.02	.98	.134
지리_사후	58	3.19	.89			.894
역사_사전	58	3.47	.75	.30	1.02	2.175
역사_사후	58	3.17	.86			.034
풍습_사전	58	3.31	.82	.43	1.19	2.767
풍습_사후	58	2.88	.86			.008
가사이해_사전	58	3.93	.92	.34	1.22	2.149
가사이해_사후	58	3.59	1.00			.036
가사발음_사전	58	3.83	.88	.11	1.17	.676
가사발음_사후	58	3.72	.85			.502
음악적부분_사전	58	3.19	.59	.45	.60	5.798
음악적부분_사후	58	2.74	.67			.000
다문화적요소_사전	58	3.55	.62	.23	.79	2.307
다문화적요소_사후	58	3.31	.67			.025

(유의수준<0.05)



[그림 1] 다문화 음악 학습 유경험: 음악 요소 사전·사후 비교



[그림 2] 다문화 음악 학습 유경험: 다문화 요소 사전·사후 비교

2. 다문화 음악 학습 무경험자의 사전·후 분석 결과

다문화 음악을 학습했던 경험이 없던 그룹이 사전에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가사 발음을 정확하게 노래 부르기($M=3.89/SD=.94$), 가사 이해하며 노래 부르기 ($M=3.84/SD=.90$), 악곡의조를 이해하며 노래부르기($M=3.76/SD=.80$) 순이었다. 사전 조사에서 쉽다고 인식하고 있는 요소로는 박자($M=3.00/SD=.71$), 빠르기($M=3.02/SD=.73$), 리듬($M=3.19/SD=.73$)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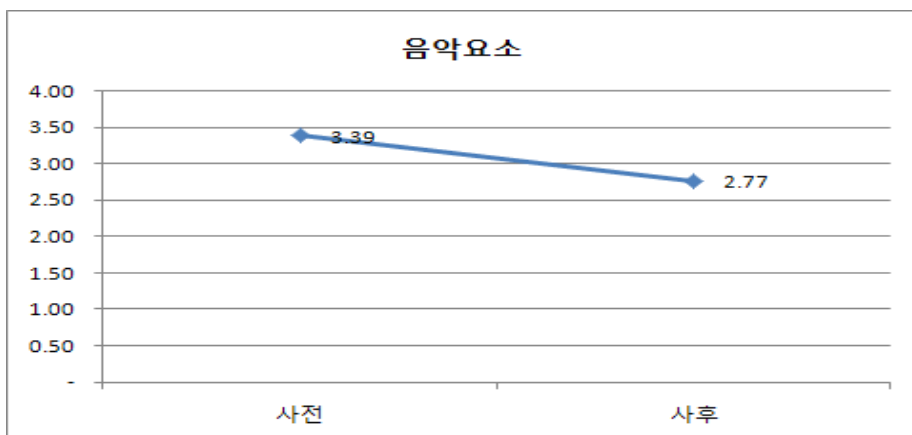
다문화 음악을 학습했던 경험이 없던 그룹의 사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에서 사전보다 활동이 쉽다고 대답했다. 다문화 음악 학습 경험이 있던 그룹과 마찬가지로 평균만을 비교했을 때는 모든 부분에서 평균점수가 하락했고, 이는 학습 프로그램 후에 모든 부분에서 이전 보다 쉽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가사 발음과 이해 역시 동일한 결과가 나왔지만 여전히 평균이 높아서 학습 후에도 쉽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통계적으로 보면 대부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지만, 박자를 이해하며 노래 부르기와 다문화적 내용 중 지리, 역사, 풍습과 관련된 요소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음악적인 부분과 다문화적 요소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을 해보면 음악적인 부분의 사전 조사 결과($M=3.39/SD=.49$)와 사후조사 결과($M=2.77, SD=.4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점수가 하락했고, 다문화적 부분 역시 사후에서 모두 점수가 하락했다.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와서 두 부분 모두 다문화 학습 프로그램 이후에 쉽게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4> [그림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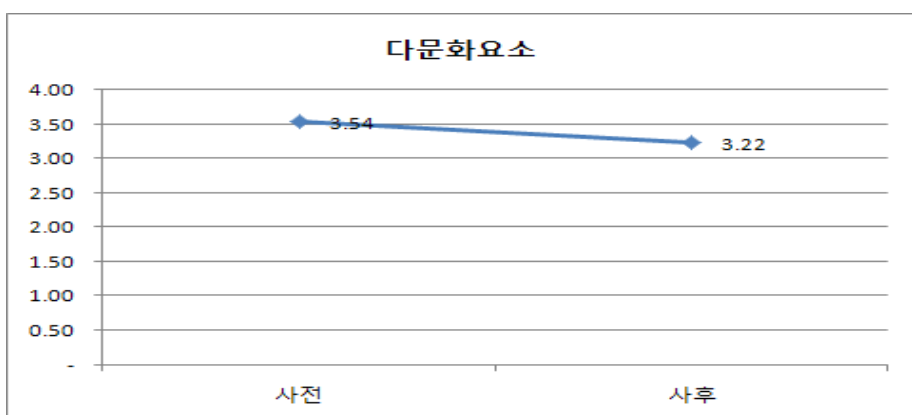
<표 4> 다문화 음악 학습 무경험자의 분석 결과

구분	N	평균(M)	표준 편차 (SD)	평균 차이	차이 표준 편차	t 유의수준 (양쪽)
박자_사전	37	3.00	.71	.24	.86	1.715
박자_사후	37	2.76	.76			.095
셈여림_사전	36	3.25	.91	.58	1.18	2.966
셈여림_사후	36	2.67	.72			.005
빠르기_사전	37	3.03	.73	.54	.87	3.783
빠르기_사후	37	2.49	.69			.001
리듬_사전	37	3.19	.81	.41	.87	2.852
리듬_사후	37	2.78	.67			.007
화음_사전	37	3.49	.80	.68	.97	4.222
화음_사후	37	2.81	.74			.000
조_사전	37	3.76	.80	.81	1.08	4.584
조_사후	37	2.95	.71			.000
음계_사전	37	3.62	.83	.73	1.02	4.361
음계_사후	37	2.89	.57			.000
형식_사전	37	3.73	.73	.92	.98	5.689
형식_사후	37	2.81	.70			.000
지리_사전	37	3.27	.99	.22	1.00	1.310
지리_사후	37	3.054	1.00			.198
역사_사전	37	3.38	1.06	.30	.99	1.815
역사_사후	37	3.08	.86			.078
풍습_사전	37	3.30	.94	.28	.99	1.660
풍습_사후	37	3.02	1.01			.106
가사이해_사전	37	3.84	.90	.34	.92	2.492
가사이해_사후	37	3.50	.96			.017
가사발음_사전	37	3.90	.94	.41	.76	3.235
가사발음_사후	37	3.49	.84			.003
음악적부분_사전	37	3.39	.49	.62	.58	6.464
음악적부분_사후	37	2.77	.45			.000
다문화적요소_사전	37	3.54	.72	.32	.64	2.962
다문화적요소_사후	37	3.22	.69			.005

(유의수준<0.05)



[그림 3] 다문화 음악 학습 무경험: 음악 요소 사전·사후 비교



[그림 4] 다문화 음악 학습 무경험: 다문화 요소 사전·사후 비교

3. 다문화 음악 학습 유·무경험자 간의 비교 분석 결과

두 그룹간의 음악적 요소 평균만을 비교하면 사전 조사에서 다문화 음악학습 유경험자들의 평균이 3.19, 무경험자들이 3.39로 나왔고, 사후 조사에서 유경험자들이 2.74, 무경험자들이 2.77로 나왔다. 다문화적 요소의 경우 유경험자와 무경험자들의 사전 평균에서 차이가 거의 없었고(3.55 와 3.54), 사후 평균은 3.31과 3.22로 모두 사전에 비해 쉽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음계 이해하며

노래 부르기를 제외한 모든 요소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두 그룹 간의 비교 분석은 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는 두 그룹간의 비교 분석 결과이다. 다문화 음악 학습 유경험자 그룹을 A로, 무경험자 그룹은 B로 표기 하였다.

<표 5> 다문화 음악 학습 유경험자 그룹과 무경험자 그룹의 비교 분석 결과

구분	그룹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수준 (양쪽)
박자_사전	A	58	2.76	.84	-1.445
	B	37	3.00	.71	.152
셈여림_사전	A	58	3.22	.90	-.244
	B	37	3.27	.90	.808
빠르기_사전	A	58	2.91	.78	-.709
	B	37	3.03	.73	.480
리듬_사전	A	58	3.02	.87	-.965
	B	37	3.19	.81	.337
화음_사전	A	58	3.55	.84	.375
	B	37	3.49	.80	.709
조_사전	A	58	3.62	.95	-.723
	B	37	3.76	.80	.472
음계_사전	A	58	3.03	.77	-3.514
	B	37	3.62	.83	.001
형식_사전	A	58	3.41	.80	-1.946
	B	37	3.73	.73	.055
지리_사전	A	58	3.21	.79	-.328
	B	37	3.27	.99	.744
역사_사전	A	58	3.47	.75	.467
	B	37	3.38	1.06	.642
풍습_사전	A	58	3.31	.82	.071
	B	37	3.30	.94	.943
가사이해_사전	A	58	3.93	.92	.488
	B	37	3.84	.90	.627
가사발음_사전	A	58	3.83	.88	-.338
	B	37	3.89	.94	.736
박자_사후	A	58	2.60	.94	-.836
	B	37	2.76	.76	.405

구분	그룹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수준 (양측)
샘여림_사후	A	58	2.64	.83	-.171
	B	36	2.67	.72	.864
빠르기_사후	A	58	2.55	.78	.416
	B	37	2.49	.69	.678
리듬_사후	A	58	2.71	.88	-.454
	B	37	2.78	.67	.651
화음_사후	A	58	2.83	.88	.096
	B	37	2.81	.74	.924
조_사후	A	58	2.98	.96	.200
	B	37	2.95	.71	.842
음계_사후	A	58	2.70	.80	-1.229
	B	37	2.89	.57	.222
형식_사후	A	58	2.88	.84	.413
	B	37	2.81	.70	.681
지리_사후	A	58	3.19	.89	.691
	B	37	3.05	.99	.491
역사_사후	A	58	3.17	.86	.504
	B	37	3.08	.86	.616
풍습_사후	A	58	2.88	.86	-.761
	B	37	3.03	1.01	.449
가사이해_사후	A	58	3.59	1.00	.608
	B	37	3.46	.96	.545
가사발음_사후	A	58	3.72	.85	1.332
	B	37	3.49	.84	.186
음악적부분_사전	A	58	3.19	.59	-1.666
	B	37	3.39	.49	.099
다문화적요소_사전	A	58	3.55	.62	.095
	B	37	3.54	.72	.925
음악적부분_사후	A	58	2.74	.67	-.239
	B	37	2.77	.45	.812
다문화적요소_사후	A	58	3.31	.67	.621
	B	37	3.22	.69	.536

4. 개인의견

연구 참여자들이 기술한 개인의견은 보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 하였지만 몇 가지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왔다.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다문화 음악이 재미 있다는 의견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어렵고 쉬운 것과 별개로 다문화 음악 학습을 재미있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가사발음이 재미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는 가사 발음을 어려워하면서도 재미있게 여기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분위기가 색다르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가 색다른 느낌을 준다고 기술되어 있지는 않았다. 다문화 음악 학습 유경험자의 답변 중에서는 다문화 음악을 학습한 경험은 있으나 너무 짧고 간단하게 배워서 아쉬웠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즉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깊이 있게 학습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결과 논의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 음악을 학습 했던 경험의 유무를 떠나서 프로그램 이후에 대부분의 내용을 이전 보다 쉽게 인식하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구체적인 인식의 내용은 다르더라도 학습을 한 이후에 다문화 음악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었다는 결과를 내놓았던 기존의 연구들과 같은 맥락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Fung, 1995; Bond, 2001; Anderson and Campbell, 1996; 최진호, 2010).

이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했던 음악 요소와 다문화 요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다문화 음악을 학습했던 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가사를 이해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하는 활동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노래 가사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익숙하지 않은 언어이기 때문 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연구에 참여했던 예비교사들 중에는 학습 도중 처음 듣는 언어를 들으면서 웃음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발음이 어려워서 부를 때마다 다른 발음을 내는 경우도 많았다. 개인의견에서도 학생들은 가사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겠다, 언어가 낯설지만 재밌다 등 언어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가사의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는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원어로 녹음된 음원을 사용해서 가르쳐야 한다. 이는 다문화 음악교육을 할 때 중요하게 다뤄지는 ‘정통성이 있는 교육 자료(authentic educational materials)활용’이라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정확한 원어를 사용한 자료를 사용하거나, 교사가 정확하게 노래해 주어야 하고, 번역이 된

경우라면 그 가사는 틀리지 않게 번역 되어야 한다고 다수의 학자들은 주장한다 (Palmer, 1992; Yamamoto, 2002; Yudkin, 1990). 다른 문화의 노래를 배울 때 언어와 가사가 갖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 문화의 여러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사는 중요한 요소이다. 앞으로 다문화 음악교육을 할 때 가사가 있는 곡의 경우에는 가사의 의미와 발음이 올바르게 학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빠르기는 두 그룹 모두 가장 쉽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셈여림과 박자도 쉽게 인식하고 있었다. 빠르기, 셈여림 그리고 박자는 교과서 안의 다문화 곡이 빠르기, 셈여림, 박자의 변화가 없는 곡들이 대부분이고, 친숙한 빠르기, 박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에서 나타난 사후의 인식 변화가 반드시 ‘잘 할 수 있다,’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고, 그 부분은 또 다른 연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예비교사들이 ‘쉽다’라고 인식하게 된다면 그만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술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향상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그룹간의 비교 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전 학습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다문화 음악을 학습한 경험이 있더라도 학습 내용의 질과 양적인 면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라고 유추해본다.

IV. 요약 및 제언

이 연구는 다문화 음악 학습 전과 후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를 어렵거나 쉽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가창활동을 중심으로 음악의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적 요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과 인원은 교육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예비교사 95명이며, 이들 중 58명은 다문화 음악을 학습한 경험이 있고, 37명은 없었다. 총 14주에 걸쳐 현재 초등학교 3~4학년에 수록된 6곡의 다문화 가창곡을 학습하였다.

학습 프로그램 종료 후 대부분의 음악 구성 요소와 다문화적 요소들을 쉽게 인식하게 되었고, 이 결과는 다문화 음악 학습을 충분히 하면 예비교사들이 다문화 음악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자신감을 얻고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음악 구성요소 중에서는 박자나 빠르기, 셈여림 등의 요소가 쉽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악곡들의 대부분이 많이 접해본 빠르기나 박자로 구성되어 있어서라고 분석되어 진다. 다문화 악곡이 짧고 음악 구성 요소들의 변화가 많지 않기 때문 인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적 요소는 결과적으로 인식 변화는 있었으나 음악 구성 요소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가사 이해나 가사 발음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익숙하지 않은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음악적 요소보다는 다문화적 요소를 어렵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특히 가사에 대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정확한 언어로 녹음된 자료 등을 통해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불러 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의 변화는 교육의 내용이나 방향에 영향을 준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 역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음악교과서에는 다문화 음악이 점점 양적으로 증대하고 있고, 문화의 다양성도 폭넓어 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예비교사를 위한 교육 과정에서 다문화악곡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비교사들이 교과서 안의 다문화 음악을 학습하면서 갖게 된 인식을 조사한 본 연구의 결과가 교사 양성기관에서 다문화 음악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영옥, 서현, 박형선, 정상녀, 윤경선, 박미자, 이나영 (2011). 유아 다문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김향정 (2014). 한국적 다문화 음악교육의 실천적 함의를 기반으로 한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연구.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제 14권, 8호, 515-538.
- 석문주 외. **초등학교 음악 3~4**. 두산동아. 2014.
- 승윤희, 민경훈, 양정모, 정진원. (2013). **예비교사와 현장교사를 위한 초등음악 교육**. 학지사.
- 오세균 외. **초등학교 음악 3~4**. 천재문화. 2014.
- 윤문정 (2009). 한국의 다문화 음악교육 실태조사. **음악교육공학**, 8호, 169-182.
- 장기범 외. **초등학교 음악 3~4**. (주)미래엔. 2014.
- 정길선 외. **초등학교 음악 3~4**. (주)지학사. 2014.
- 이가원 (2013).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한 음악 교사 교육의 방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3권 제7호. 473-483.
- 이동남, 홍주희 (2008) 21세기 세계화에 따른 다문화교수법 적용 방안 연구. **한국 초등교육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제 19권, 2호. 119-135.
- 이지선, 조효임 (2004). 월드뮤직의 수용과 다문화적 음악교육에 관한 초·중등교사의 의식 연구. **한국음악연구**, 35. 241-268.
- 최진호 (2010). 음악대학원생들의 다문화 음악에 대한 태도와 다문화 음악선호도와 의 관계. **음악교육공학**, 10호. 81-94.
- 홍후조 (2002). **교육과정의 이해와 개발**. 문음사.
- Anderson, W. & Campbell, P. (Eds.) (1989) *Multicultural perspectives in music education*. Reston, VA: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 Anderson, W. & Campbell, P (Eds.) (1996). *Multicultural perspectives in music education* (2nd ed.). Reston, VA: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 Bond, J.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sixth grade students' non-Western music preference and their attitude toward cultural d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Chen-Hafteck, L. (2007) In search of a motivating multicultural music experience: Lessons Learned from the sounds of skill project.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25, no.3. 223-233.

- Erwin, J. Edwards, K. Kerchner, J. & Knight, J. (2003) *Prelude to music education*. New Jersey, USA:Prentice Hall.
- Fung, C. V. (1995). Rationales for music teaching world musics. *Music Educators Journal*. 82 (1). 36-40.
- McDaniel. (1988). Transferability of Multicultural Education from Training to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 12. 19-33.
- Palmer, A.J. (1992). World musics in music education: The matter of authenti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19. 32-40.
- Yamamoto, M. (2002) Analysis of American curricula materials on Japanese music. K through 8: rethinking the images of th *koto, sakura, and kimono*.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Yudkin, J. J. (1990) An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world music education in California's public schools, K-6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Angeles).

ABSTRACT

The Perceptions of Pre-service Teachers on Musical and Multicultural Elements of Multicultural Music in Music Textbooks

Moonjung Y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s perceptions about learning contents(musical and multicultural elements) of multicultural music included in music textbooks. For the investigation, 95 pre-service teachers were surveyed. The paper surveys were conducted before and after 14 weeks multicultural music learn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positive effects on the perceptions of participants about musical and multicultural elements. The result indicated that participants thought the pronunciations and meanings of texts were most difficult.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helpful to establish the curricula related to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in pre-service and in-service teacher education institute.

Key words: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multicultural, perceptions of pre-service teachers

투고일: 2015년 2월 28일, 심사(수정): 4월 22일(5월 2일), 게재확정일: 5월 17일